

개혁주의 경제윤리

최종태(아세아신대)

도입하는 말

프랑스 시민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양대 사건은 신분제를 붕괴시키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대로 분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자유 경쟁에 의한 시장 경제로의 진전을 촉발시켰다. 서구사회가 이렇게 봉건사회에서 산업 혁명을 통해 근대 시민사회로 옮겨간 저변에는 공리주의, 자연법사상, 기독교윤리 등의 다양한 정신적 토양이 있었지만,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발전해온 한국의 경우, 자유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제도에 필요한 정신적 기반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단지 빈곤을 극복하여 ‘잘 살아보자’라는 욕망 하나로 대부분의 국민이 열심히 일한 결과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선진 경제로의 진입을 앞 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청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 개혁이다. 즉,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폭넓게 개혁주의(성경적)¹⁾ 경제 윤리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1) ‘개혁교회’란 용어 (Reformed Church)는 넓게는 종교개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분

제1 원리는 하나님 축복의 원리이다

인간들이 어항 안의 금붕어들이라면 하나님은 어항 밖에서 금붕어를 책임진 사람이라 하자. 이런 비유는 우리의 원리를 보다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항 속의 금붕어들이 서로 경쟁한 다해도, 인간이 먹이나 산소를 외부에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저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인간들이 지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경제 생활을 도모한다 해도 위에서 은총을 부지 아니하시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1)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1) 인류 역사 시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책무로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 필요가 모두 충족되었다. 창조시 인간을 ‘에덴의 경작자’로 이해하는 것(창 2:15에 근거해서)이나,²⁾ 온 땅에 충만하여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

리된 개신교를 총칭하기도 하지만, 좀더 좁게는 칼빈주의 교리를 지닌 교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란 개신교 사상이나 칼빈주의를 지시할 것이다. 반면 ‘장로교회’란 말은 “장로들”로 불리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사와 함께 교회 정치를 운영하는 교회 정치체제를 지시한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 사상면에서 칼빈주의를 따른다. 개혁주의(칼빈주의) 사상은 루터파의 “믿음 만으로”(sola fide)라는 슬로건에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 첨가하였다. 우리는 이 글에서 “개혁주의”란 말을 “칼빈주의”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루터교, 칼빈주의, 웨슬레, 침례교 등은 그 강조점들에서 약간 차이가 드러난다. 루터교는 율법과 복음의 예리한 구분 혹은 이신칭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웨슬레는 제2 축복 혹은 완전 성화, 침례교는 중생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제 교회들은 여러 면에서 가톨릭 교회와 구분되어 한 개혁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공통점들이 많다.

라는 말씀을 경제 활동의 필요로 이해하는 사고는 성경적 근거가 없다. 타락 이전에 경제 활동은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축복으로 주어졌고 넉넉하고 풍성했기 때문이다. 누리면 되었고, 분배의 부조화도 존재하지 않았다.

(2)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은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축복 대신 경제적 빈곤과 고통이 저들에게 예고되었으니, 곧 칼과 역병, 기근, 야수에 의한 처벌이다. 이것들은 결국 경제적 파탄을 초래한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계속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요청하셨다(신 30:15-20).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부(富)의 수여자이심을 천명하셨다(신 8:17-18):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전 2:24-26; 5:18-20; 8:16). 물질, 재화, 자연 자원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자체로 선하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은 경제 활동의 원천이 된다.

예를 들어, 어느 공장이 신발을 생산, 수출하여 외화를 벌었다 하자. 그 공장 주인이나 종업원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따져 보자. 저들의 건강, 기술, 지혜, 공장의 기계, 건물, 공장 부지(토지), 공업 용수, 공기 등을 분해해 보면 결국 인간의 노동력, 지혜, 원자재(철광석, 나무, 유리, 토지, 물, 공기 등)로 압축된다. 이것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임태수,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농업 정책 연구,” <구약논단> 3 (1997/8), 64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상적인 인간은 농민이었다”라 그릇되이 말한다. 최종태, “창 1, 2장의 창조론,” <신학과 선교> 2 (1999년), [출간 예정] 참조.

이런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는 더러 있다. 예컨대, 신문에도 소개된 환경 미화원 김영백씨와 그의 아내 한군자씨는 그 좋은 경우이다.³⁾ 김영백이 일하는 장충동 주민들은 그를 “성자가 된 청소부”라 부른다고 한다. 그는 공적인 업무가 비는 아침 저녁 하루에 두 차례 산꼭대기에 있는 그의 집에서 손수레를 끌고 나와 그 일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파지, 병, 빈깡통 등 재활용품들을 수집하여 번 돈으로 실로암 병원을 통해 매 월 한 사람의 개안 수술비를 후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50만원 씩 4명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취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겨우살이를 돕기도 한다. 그는 건강을 잃었다 얻었기에 자신이 일할 수 있다는 자체를 축복으로 여긴다. 그는 자신이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묻자, “제 돈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이나 폐휴지들은 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얼마나 정확한 생각인가!

2) 자연세력의 비 - 신화(脫神化)는 개척 정신을 제공해 준다

‘철도를 건설하면 지신(地神)이 노한다’든지, ‘가뭄이 들면 임금의 기우제를 드려야 한다’, ‘조상묘를 명당에 잡아야 자손이 번창한다’ (풍수지리설)는 식의 생각이나 자세로는 오늘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렵다. 사회 활동은 모두가 신념의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념이 미신적이라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바른’ 신념의 정립이다. 바른 신념의 토대는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어떤 이들은 말하길, 서구 문명이 야기시킨 환경 파괴와 오염의 주

3) 국민일보 (1999년 3월 17일), 23면.

범은 바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이였다 한다.” 자연을 신적인 위치에서 피조물로 강등시킴으로(非-神化) 자연의 존엄성이 파괴되도록 했으며, 인간을 만물의 통치자라 부추김으로 ‘자연 혹사’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을 신격화하는 힌두교(소를 우상시)나 바다에 배를 띄울 때 고사를 드리는 세계관이 정당한 것이란 말이나? 또한 창세기 1장 28절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사고는 성경 해석의 잘못과 연관된 왜곡된 신념을 겨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 자체를 잘못되었다 비난할 수 없다. 그 말씀은 축복으로 나타날 인간의 모습을 말씀해 줄 뿐, 소위 자연을 혹사하라는 문화 명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3) 기독교신앙과 그 철저한 실천은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그의 책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1904-05)에서 주장한 요지는 특별히 자본주의 발달과 칼빈주의 추종자들, 특히 영국 퓨리탄들의 금욕사상 사이의 상관성을 지적한 것으로 오늘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자극을 준다. 막스 베버가 칼빈의 예정설과 청교도들의 철저하고 빈틈없는 금욕적 생활을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한 시도는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럼에도 베버가 가톨릭교회나 루터파에 비할 수 없이 철저하게 전체 삶의 기독교화를 칼빈주의가 요청했으며, 이러한 엄격한 도덕생활 때문에 빈번히 음주와 방탕에 빠져들었던 루터파 귀족들에 비하여, 개혁파 귀족의 윤리 수준은 더할 수 없이 높았다는 지적이나, 루터파 교직자가 순전히 은혜만을 강조함으로 현실 생활에 무력했던 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4)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1967); 린 화이트는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행한 연설에서 기독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인간 중심의 종교로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 기소했다.

영광을 위하여!’란 구호를 내걸고 전체 생활의 온전 무결을 실천하고자 했던 청교도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보인다.⁵⁾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선택으로 결정된다고 확신하므로, 여하한 인간적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고, 자신이 선택받은 자임을 매일의 삶에서 열매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루터는 세상을 마귀의 것으로 단정해 버리고, 오직 개인의 은혜에 치중함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 해도,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준 꼴이다. 반면, 칼빈은 세상은 타락했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워야 할 막중한 사명을 절감했던 것이다.⁶⁾

막스 베버는 특히 리차드 백스터의 저작에서 자신의 논지를 발견하고 있는 바, 그에 의하면, 퓨리탄의 저작들 중에는 화폐와 재화의 추구를 죄악이라 부정한 사례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지만, 정작 경계되는 바는 축재 후의 안일, 부의 향락의 결과인 대만과 육욕, 특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의 포기이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란 내세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현세에서 인간은 우리를 보내신 자의 일을 닦는 동안에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한가한 유유자적이나 향락이 아니라 활동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시간 낭비는 원칙상 최고, 최대의 죄악이다. 인간의 생명이란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이루기에 너무나 짧고도 귀하다. 사고나 필요없는 잡담, 사치로 인한 시간 낭비, 건강에 필수적인 수면 시간외의 수면 등도 배격되어야 할 사항이다.⁷⁾ 베버는 결론짓는다:⁸⁾

5)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양희수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94), 125.

6) William J. Bouwsma, "Calvin and Calvinism,"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ition), 15:437. 부스마의 칼빈/ 루터 비교도 막스 베버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부스마의 칼빈 이해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칼빈과 그 후계자들 사이의 '연속성' 보다 '불연속성' 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7) *Ibid.*, 186-190.

프로테스탄트 (특히 칼빈주의 퓨리탄)의 세속적 금욕은 무계도한 소유의 향락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반대하고, 소비 특히 사치적 소비를 분쇄한 것이다. 또 한편, 이 금욕은 심리적 작용으로써 재화의 추구를 전통적 윤리의 억압에서 해방시켰으며, 이윤 추구를 합법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신의 직접적인 의지로 간주함에 의하여 질곡을 타파하였던 것이다. 퓨리탄 교도와 더불어 퀘커의 위대한 효교가인 바클리도 언명하고 있듯이, 육욕과 외면 재물에의 집착에 대한 투쟁은 결코 합리적 영리에 대한 투쟁이 아니고, 부의 비합리적 사용에 대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이 역사와 사회의 발전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라면, 베버의 학설은 사회와 역사가 변함에 있어 정신적인 요소 (특히 종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으로 20세기에 정립된 사회과학 이론 중에서 수 많은 논쟁을 야기시킨 바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마르크스의 이론보다 막스 베버가 월등히 탁월한 통찰력이라 보인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는 종교나 사상, 주의나 이념은 물질적인 하부 구조로부터 도출되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유물론 사고는 하나님을 배재하고 보이는 물질을 우선시하므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법에 이르는 지름길을 지도했다는 것이 공산 유물론 체제의 몰락에서 입증된 바다.”⁸⁾

4) 하나님 중심 사고는 경제 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말해준다

재물의 오용은 잘못된 재물관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8) *Ibid.*, 204-5.

9) 베버와 연관된 유익한 제 논의들을 김필년, 《자본주의는 왜 서양문명에서 발전했는가?》 (서울: 법양출판사, 1993)에서 참조. 그는 권력들 상호관계 (정치, 종교, 경제 권력 등)야말로 경제 발전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 권력은 종교 권력과 밀착되었는가? 아니면 상호 투쟁적인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은 통일된 강력한 것인가? 분산된 권력인가? 등의 상호적 세력 관계를 중시한다.

재물관을 바로 가져야 한다. 성경은 가르치길, 1)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2)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3) 재물 자체는 사용 방식에 따라서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다. 물질주의나 금욕주의는 모두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다. 재물을 자체로 악하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딤후 6:10)는 말씀도 돈 자체를 ‘악하다’ 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돈을 악용하면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신명기 8장 11-14절은 말씀하길,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지금 우리 한국민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처지에 와있다. 물질의 소유나 부의 풍요로움을 가질 때 유혹을 이기고 목적을 바로 찾고 자신을 부인하고 초탈자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물질이 모두 그 분의 목적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없는 듯이 살아야 한다(고전 7:29-31).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나머지를 모두 그의 나라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부는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성막 건축시에 바쳐진 애굽에서 얻은 금은 보화(저들의 노동의 대가였다)나 이후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부가 성전 건축에 사용된 일에서 보여진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경제 투자의 원리이다.

5) 역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갈 때 현세적 형통이 동반됨을 말해 준다

지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서구 세계가 근대사의

주역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의 원인은 규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설명은 저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고 해야 한다. 영국이 신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한 근본 이유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종교적이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전에 설립된 제임스 타운 정착지의 ‘버어지니아 헌장’(1606년 4월 10일)은 선언하길, “그 고귀한 일 -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그 분의 영광을 더 높이고, 진리를 모르기에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아직도 어둠에 처한 저 무신론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우리는 열망하면서 시작하는 바이다. 우리는 저 무신론 야만인들이 인간적인 정부하에 살도록 하고자 한다.”

1607년 4월 헨리만(灣)에 도착한 제임스 타운 식민지 설립자들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하여 한 일은 큰 나무 십자가를 하나 세우고 기도회를 가진 일이었다.

성조가(星條歌)는 노래하길, “승리와 평화로 축복 받았네. 하늘이 건져준 이 땅, 우리 나라 지켜주신 그 권능 찬양하세. 우리 대의 의로울진대, 우리는 정복해야 하리. 이것이 우리의 모토이니, ‘하나님을 우리는 믿노라!’ 자유롭고 용감한 자의 고향 온누리에, 성조기여 승리를 전하며 힘차게 펄럭이라.”¹⁰⁾

미국에서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과 같은 학교들은 미국의 일류 대학들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모두가 초창기에 복음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된 점이 주목된다. 하버드 대학의 초기 총장들이나 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참 지혜나 지식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1646년에 채택된 하버드 대학의 “교칙들”(Rules and Precepts)에 의하면, “누구나 자기 생의 주요 목적을 고

10) Blessed with victory and peace, may this Heav' n-rescued land. Praised the Power that hath made and preserved us a nation! Then conquer we must, when our cause it is just. And this be our motto: 'In God is our trust!' And the star-spangled banner in triumph shall wave O'e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려하여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공부한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알고, 하루에 성경을 두 번씩 읽고 성경을 익히겠다는 것을 시험관 앞에서 증거해야 한다. 그 시험은 언어나 논리 등의 이론적인 것 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영적인 진리들까지 포함한다”고 했다.

개혁주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고 믿는다. 이것의 한 증거는 복음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도 움직인다는 인식이 아닐까. 서울 롯데 호텔에서 몇 년 전 산업연구원(KIET)의 주최로 개최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 회의에서 스탠포드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아시아권은 기술 진보 없이 단순히 인적, 물적 자본의 급속한 축적을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은 1위가 미국, 2위는 유럽 국가, 3위는 중국, 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이을 것이며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다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런 크루그먼 교수의 예견은 일견 그럴듯 하지만, 경제의 문외한인 내게는 틀린 말처럼 들린다. 문명의 흥기는 분명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전개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옳다. 그런데 기술보다 우선되는 것은 ‘사람’ 혹은 사람의 ‘정신력’이다. 정신력의 해이나 느슨한 정신력이 생겨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자본이 있어도 경쟁에서 지고만다. 신앙인의 견지에서 볼 때, 근대 세계사를 주도해온 서구의 미래는 어둡다. 저들은 자기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저 버리고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나아가면서 ‘가나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국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발전은 오직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서 가장 확실하다. 우리는 세계를 지도할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외적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 때문이다. 이 힘은 보이지 않으나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이다. 토지나 노

11) “미국의 황혼은 시작되는가?” 《미국 초강국의 빛과 그늘》 신동아 별책 부록 (1996년 1월호), 296-385 참조.

동력, 기술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자산이야 말로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의 활력이다. 이것을 수치적으로 환산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길, 하나님의 손에 축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고 한다(신 28:1-68에서 언약 백성에 대한 상벌 규정을 보라). 그 분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축복이요, 그 분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제 우리는 물론 구약 시대처럼 민족 단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구약의 상벌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유효하다.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양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2 원리는 인간의 원리이다

경제의 주체는 인간이다.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성경은 경제 활동과 연관하여 여러 가지를 말씀한다. 특히 오경의 법규들을 내용 면에서 구분해 보면, 사회 생활, 농업,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규들이 다수 나타난다.¹²⁾ 그 내역들은 대개, 훔친 물건 되돌리라(레 5:23), 가나한 자에게 주라(신 15:8), 이자 취득 금지(출 22:24 등), 일군에게 샅을 제 시간에 줄 것(신 24:15), 추수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레 23:22),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신 25:4), 안식년을 지켜 땅으로 안식케 하라(레 25:4), 회년에는 땅을 갈지 말라(레 25:11), 기업(땅)을 타인에게 팔지 말 것(레 25:23), 빈궁한 자를 도우라(신 15:7), 도적질 말라(출

12) 중세기의 유대교 랍비 마이모니데스(Maimonides)는 오경 율법들의 목록인 “계명들의 책”(Sepher Mitzvoth)을 출간하여 613개의 항목으로 전체 오경의 율법들을 제시하였다. Sepher Mitzvoth, ed. Mordecai J. Lev (Jerusalem: Mossad Harav Kook, 1990); “Commandments, the 613,” in *Encyclopedia Judaica* 참조.

20:13), 경제표를 옮기지 말라(레 19:14), 상 거래시 사기치지 말라(레 25:14), 일꾼을 심하게 대하지 말라(레 25:43), 타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18), 공평한 도량형을 사용하라(신 25:13 등) 등이다. 물론 여기 언급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이런 오경의 법규들이 새 언약 하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구속성이 있는가? 혹자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롬 6:15) 우리 성도들은 구약법과 무관하다고 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들을 성취하셨지만 그것들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즉, 그 문자적 준수는 아니라 해도, 그 의미상의 효력은 새 언약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법들이 구현하고자 한 정신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으로 오늘날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구 언약의 모든 것을 ‘흡수하여’ 갱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 이 율법은 성도로서의 행할 방식을 지시하는 표준 윤리로서 작용할 뿐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1) 이자 금지법과 부동산 관련 범죄

여기서 오경의 모든 법규들을 고려하기 어렵고, 이자 취리의 금지 법규만 고려해 본다.¹³⁾ 미리 한 가지 강조해 둘 것은 비록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법이지만, 저들도 역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후에 이 진술이 함축하는 바를 재론할 것이다. 오경(출 22:25; 레 25:35-37; 신 23:19-20)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한다. 이식을 나타내는 용어는 *neshekh*

13) 교회사가 Philip Schaff는 그의 교회사에서 “고리대금”(usury) 처럼 중세 교회 회의의 주목을 많이 끌었던 사항도 다시 없었다고 했다. 그에 의하면, 고리대금은 처음에 (Elvira 회의에서) 평신도나 성직자 모두에게 금지되었다가, 325년의 니스(Nice) 회의에서는 성직자에게만 금지되었다. 나중 제롬, 어거스틴, 레오 1세 등은 다시 평신도까지 금하였다. The Middle Ages, Ch. IX. Missions §77 The Jews항 참조.

(출 22:24; 신 23:20), *tarbit or marbit*(레 25:36-37) 등이다. 유대인들 중에서 한 권위 있는 견해에 의하면, 이 '네쉐크'와 '타르빗'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¹⁴⁾ 이사야 선지자가 기소했던 부동산 관련 범죄(사 5:8-10)는 이자 취득 금지 법규와 서로 연관된다.¹⁵⁾ 이사야는 주전 8세기 동안에 소작농이 직면했던 위험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남왕국 유다에서는 웃시야가 각기 장기간 통치하면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경제적 부흥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시켜 소작농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가난한 소작농들은 때로 부한 이웃에게서 곡식이나 돈을 빌어야 살 수 있었다. 관례에 의하면 수확을 거둬들일 때 되갚기로 하고, 가을쯤 해서는 돈이나 곡식을 빌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때로 작황의 실패로 빈곤에 떨어지고, 따라서 자신들이 빌린 곡식이나 돈을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빚진 자의 개인적 부채는 자기 재산만 아니라 자기 가족원들에게 미쳤다. 채권자는 지불 불능의 채무자의 소유물이나 동산을 압류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출 22:25; 신 24:6, 10-13, 17), 법은 채권자의 강제력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몸이나 그 가족 혹은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남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종종 힘이나 폭력으로 집행되었을 것이다(겔 22:12 참조).

채권자가 빚에 어떤 이자를 물리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그런 이자 취득이 타인의 곤경에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빌린 돈은 불행이나 빚으로 야기된 빈궁을 벗어나기

14) Bava Mezia 60b; 미쉬나의 소논문(tractate), 원래 Bava Mezia는 '네지킨'의 제2부였다. 1, 2장은 취득의 법들을 다룬다. 5장은 이자법을 다룬다

15) 이 부분은 Eryl W. Davies, *Prophecy and Ethics: Isaiah and the Ethical Traditions of Israel*(Sheffield: JSOT, 1981), 65 이하 참조.

위해 차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자 금지법은 사회에서 더 가난한 계층을 돕고자 의도되었지만, 실상 그것들이 보호하고자 의도한 자들의 편의를 오히려 해칠 수 있었다. 예컨대, 만약 채권자가 소작농들이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제공할 '동기'를 갖지 못했다면, 소작농이 빈궁에 처했을 때 빚을 얻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은 빚을 빌려주기 거부하는 것을 정죄할 필요가 있었다(신 15:9).

고리대금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항상 준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않는다. 실로 고리대금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다(시 15:5; 잠 28:8; 켈 18:8 등). 채권자(*nosheh*)는 무상 대여를 하기에 커녕 이자를 강제 징수하는 무자비한 사람들로 묘사된다(삼상 22:2; 왕하 4:1; 사 50:1; 켈 22:12; 느 5:7).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의하면, 애굽의 유대인들은 이자 취득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다.¹⁶⁾

그런데 주전 8세기의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당대인들이 고리대금을 한다고 기소한 적이 없다. 이는 그 당대인들이 이자 취득 금지법을 외형상으로나마 준수했다는 간접적 증거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채권자들은 자기들이 빌려주는 돈에서 이득을 취하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 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돈을 빌려줄 어떤 동기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건한 자들은 무상 대여를 즐거움으로 했겠지만, 어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이자를 취득하지 않고서 달리 이윤을 취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저당물을 잡는 것이다. 이자를 물려 돈을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었다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담보물을 잡는 것은 허용되었다. 그 경우 채무자의 땅이나 가족 구성원을 취한다면 아주 이득이 남을 것이었다. 비록 채권자가 담보물을 팔거나 어떤 것과 바꾸어 담보물의 가치를 현찰로 바꿀 수 없었다 해도, 그가 담보물을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 하에서 담보물은 지불의 보증일 뿐 아니라, 동시에 채권자가 자기 자본

16) R. Yaron, *Mishpat shel Mismekhei Yev*(1961), 136; Haim Hermann Cohn, "Usury," *Encyclopaedia Judaica*에서 재 인용.

의 경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었던 수단이기도 했다.

오경은 소유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에 채권자가 담보물의 실제 주인이 될 수는 절대 없었지만, 그럼에도 자기 이득을 위해 담보물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제도는 양도 금지법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레 25:23). 양도 금지법의 기본 원리는 모든 소유물이 야웨께 속하며, 그러므로 마음대로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보물로 주어진 소유물은 양도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는 그것을 실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었고, 원 소유주는 자신이 준 담보물을 항상 되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친족이 되찾는 규정, 레 25:25; 안식년과 회년의 법들, 신 15:1 이하, 레 25:8 이하).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땅의 소유주가 세습 재산으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들을 범하지 않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야가 부한 자가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불법적이었다거나, 채용된 방식들이 공공연한 폭력의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채권자의 부당 행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한 그 어떤 것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옳다면, 소작농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지불 파산 채무자에게서 가족이나 소유물을 취할 권리는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눈을 돌려 중세기를 살펴보면, 1179년 교회는 이자 취득은 성경(구약법이나 눅 6:34)이나 자연법들이 금하는 바라고 칙령을 발표했다. 만약 기독교인이 고리대금을 한다면 그는 출교를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교회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이 이자를 받고 대부해 주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금융업은 유대인의 전형적인 사업이 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제한들이 부과되었으므로, 저들은 실제적인 이유에서

금융업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유대법의 견지에서 보건대, 이방인들에게서 이자를 취득함은 허용되었다. 탈무드의 제한 규정 곧 다른 생계수단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런 상황에 적절하였다.¹⁷⁾ 유대인들이 매긴 이자는 아주 고리로 1430년에 플로렌스에서는 20%, 1488년에는 32.5%, 북부 유럽에서는 100%에 달하기도 하였다.¹⁸⁾ 그런데 중세기에 이자 취리를 금지한 이런 관례는 칼빈이 상업 활동과 이자부(利子附) 대부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깨어졌고, 칼빈은 심지어 상업적 성공을 하나님의 선택의 한 징표로 보기까지 하였다.¹⁹⁾ 칼빈에 의하면, 오경이 이자 취득을 금한 것은 곤경에 처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부한자가 빌린 돈에는 이자가 당연히 붙어야 한다. 칼빈의 해석은 문맥상 정당하다 판단된다.

2) 이자 금지법의 시행 결과가 말해주는 메시지

이상과 같은 성경에 규정된 이자 금지법과 그것과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 현실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경제의 주체는 타락한 인간이기에(성도도 포함하여) 경제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좋은 법일지라도 그 법의 운용은 전적으로 변화된 인간 성품의 협조 없이는 얼마든지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성의 변화라는 것이다.

둘째로, 이 땅에서의 경제 행위는 타락 이후부터 신천 신지의 온전

17) Tosafot to Bava Mezia 70b s.v. tashikh. Tosefta of Bava Mezia는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8) Philip Schaff, *The Middle Ages*, ch. IX, §79 *Works of Charity* 참조.

19)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our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reprinte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3:131-132; H. Denis, *Histoire de la pense conomique*, (PUF, 1966), 82; 미셀 보(Michel Beaud), 《자본주의의 역사》 *Histoire du capitalisme: 1500-1980* (서울: 창작사, 1987), 18에서 재인용.

한 회복때까지의 한시적 활동이다. 성경에 의하면 타락 이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 경제(땅의 경작)가 필요하게 되었다(창 3:22). 자주 오해된 대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책무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다”(창 2:15).²⁰⁾ 그런데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임하여 땅이 척박해지고, 인간은 땅을 경작하여 수확을 늘이고 노동을 땀 흘려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가나안에서의 경제 활동 역시 타락한 인간(비록 구속은 받았다 해도)의 행위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경제 활동은 상대화될 수 있다. 물질적 부의 가치도 한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여기에 삶의 소망을 둘 수 없다. 당분간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할 뿐이며,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창한 대로,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이, 사는 자들은 사지 않는 것처럼, 초탈자의 생을 기본 목표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갈 흔적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인간의 경제 활동이 타락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은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생하여 새롭게 된 상태에서 경제 활동을 한다 해도, 타락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경제 활동을 해야함을 의미한다. 최근에 “건강 마을”의 대표 이사는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²¹⁾ “저는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이 글을 쓴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공직 사회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기독교인이 양심을 팔지 않고서도 기업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굵은 필체는 필자의 것)라 하였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록 성도라 해도, 이중 장부를 만들지 않고 사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원리대로 사업하기란 정말이지 너무 어렵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낳은 적당주의, 편리주의, 물질 지상주의의 만

20) 최종태, “창 1,2장의 창조론, <신학과 선교> 2 (1999년), 4월 출간 예정 참조

21) 국민일보(1999년 3월 11일 목요일), 5면 하단 전면 광고.

연을 지시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타락한 인성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방치하자는 말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가 '실제적' 윤리 지침을 발표하고, 사회가 정말 기독교인의 양심을 팔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교회가 노력을 심화시키자는 것이다. 공무원이 영적으로 타락하다면 기업을 괴롭히거나 뇌물을 요구할 이유가 없고, 기업인이 증생한 자라면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이행할 것이 아닌가? 국민도 참 성도라면 자기의 물질적 부를 어떻게 사용할 지 바로 알 것이다.

넷째로, 인간의 타락에 기인된 경제 생활은 또 다른 의미심장한 국면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후쿠야마 같은 이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가 말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체제이므로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한 말과 연관시켜 생각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곧 자유 민주주의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가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체제라 해도, 그래서 그것들이 갖는 수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공산주의, 사회주의, 왕정 등) 많은 자체 모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들이나 폐해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타락성에서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현재에서는 유평파아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경제 활동은 이런 한계들을 전제하 다음 전개된다. 이는 우리의 우선 순위를 '경제'가 아니라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다섯째로, 타락한 인간의 경제생활은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부패를 야기시킨다. 부(富)는 1) 자신의 단점을 못보게 한다(잠 28:11). 2) 부는 멸망의 선봉장 교만에게로 인도한다(잠 18:10-12; 11:28). 3) 부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도한다(전 5:12). 4) 부는 가치와 우선 순위를 전도시킨다(잠 22:1).²²⁾ 요한 웨슬레는 하나의 패러독스를 발견했다 (사실 모세 [신 33장]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말쑤한

22) 월터 카이저, 《구약성경 윤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241.

바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이 임하지만, 물질의 풍요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더라는 것이다.²³⁾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며, 현금의 미국이나 서구 세계가 공히 증명하는 바이다. 미국의 가족 제도는 붕괴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으며, 저들은 모든 면에서 '가나안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저들의 풍요로움과 여유 만만함에서 기인된 타락상이다.

그렇다고 '가난' 자체를 미덕으로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잠 30:8-9)라고 해야 할 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자 금지법이 중세기에 상업 활동을 좌악시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되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돈이 돈을'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성도들 간에는 적어도 돈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대부할 수 있는 성도은행(聖徒銀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돈이 필요한 성도들이 빌려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소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일 것이다. 성경 특히 오경에 규정된 경제법들은 성도들의 평등 생활을 유지시키려는 기본적인 토대를 강조한다. 곧 안식년 규정이나 회년 규정은 모든 성도들이 경기의 출발선에서 동일한 출발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공평한

23) A. Skevington Wood, "Awakening,"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77), 447: "I fear, wherever riches have increased, the essence of religion has decreased in the same proportion. Therefore I do not see how it is possible, in the nature of things, for any renewal of true religion to continue long. For religion must necessarily produce both industry and frugality, and these cannot but produce riches. But as riches increase, so will pride, anger and the love of the world in all its branches."

경쟁을 위한 발판을 “토지”라는 기본 재산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함으로 부여한 것이다. 이자 금지법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랐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재(偏在)를 막고, 좀 더 공평한 분배가 되어지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성도들부터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좁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들)이 비록 경쟁은 하지만, 모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녔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에 보물을 쌓는 일로서 영원한 값어치 있는 투자임을 확신해야 한다.

제3 원리는 세계화의 경제 원리이다

1) 하나님께서 세계화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혈통, 언어, 문화, 민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엡 1:10). 이는 다른 말로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일이다(창 12:3).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한 혈통된 인류라는 세계 가족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의식이다.

미국 거주 교포들이 지난 1992년 L.A. 흑인 폭동 때 많은 피해를 본 것은 어쩌면 자업 자득한 면도 있다고들 한다. 그것은 흑인들이 상점에 들어오면 “감둥이” 라면서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맞으며, 강도처럼 의심하는 자세를 늘 보여왔기 때문에 흑인들의 기분이 몹시 상하였고, 결국 폭동을 구실삼아 한인 상가들에 집중 방화와 약탈을 가했기 때문이다. 경제 행위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인류의 한 혈통됨과 하나님의 세계 구속의 사상을 알아야 한다. 인류 모두가 구원

의 대상이며, 모두가 복 받을 대상이다.²⁴⁾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이다. 이런 안목으로 세계화 시대에 무역을 해야 하고, 경제를 해야 한다.

한국은 1995년도를 세계화 원년이라고들 했다지만, 성경은 이미 창조시부터 '세계화'를 선포한다. 하나님은 세계의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타락하여 인종들이 서로간 알력을 빚고 충돌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어 세계 만민이 그를 통해 복받는다든 놀라운 '축복의 세계화' 프로그램을 계시해 주시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세계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했으나 저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자신들이 오히려 세상에 물들고 말았기에 남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끌어 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화의 경제 원리는 성도들의 기본적 영성과 도덕성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남에게 복을 주기 전에 내가 복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세계화는 하나님이 주역이시므로 이를 거스릴 수 없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무역을 조정하기 위해 설정된 GATT가 1995년부터 WTO 체제로 승화되고 진전되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부터,²⁵⁾ 세계화의 거센 파고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없게

24) 여기는 "예정론"이 거론될 문맥이 아니다. 예정론은 성경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주신" 은총을 감격하여 회고하며 드리는 "찬송"이다. 모든 교리는 서는 "자리"가 있는 법이다. 예정론은 전도하는 거리에 서는 가르침이 아니다.

25)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 경제 성장과 세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창설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은 1980년대에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Greece,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uxembourg, The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등이었다. OECD의 근본 목적은 최고의 경제 성장과 취업, 삶의 수준 향상을 도모함이다. 동시에 재정 안정을 강조한다. 이 기구는 국제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본이 회원국 사이에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함으로 이런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 다른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경제 도움을 조정하는 것이다. OECD는 그 결정을 강제할 능력 없이 단지 도덕적 설득, 회의, 세미나, 여러 출판들을 통해 그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협의체이다. 파리에 위

되었다. 이 기구에 가입하기 전에 우리 나라는 그 이후에 닥쳐올 거센 풍랑을 대비한 여러 대책들을 수립했어야 했었지만, 그런 대책 없이 가입함으로써 IMF 치하에 자신을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것은 이제 과거 지사의 일로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지금의 처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경제 윤리 없이 달려온 자세를 지향하고, 분명한 기업 윤리와 경제 윤리를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를 거스릴 수 없으니 만큼, 떳떳하게 설 수 있고 경쟁하여 패하지 않도록 확고한 경제 윤리적 기반을 단고서 타국과 당당히 경쟁하는 일이다.

2) 함께 더불어 살자

그라흐(Graff)는 <타임>지에 기고한 한 글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는 인면(人面)을 지녔기에, '가진 자'가 여러 특이한 방식들로 '갖지 못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다고 했다.²⁶⁾ 그 한 예로 "삼성"의 해외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베풀기 운동을 들었다. 예컨대 지난 18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는 소수 종족들이나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보복과 좌절의 반발을 야기했지만, 한국의 '삼성 전기'는 그런 폭풍도 맞지 않고 조용했었는데, 그것은 지난 5월의 폭동 때, 수라바야 삼성의 직원들이 삼성의 냉장고 공장을 보호하고, 외국인 경영자들을 폭도들에게서 막아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충성심은 쉽게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폭동 기간에 삼성의 직원들은 시골에 있는 친척들에게 쌀이나 종려 기름 같은 필수품을 공급함으로써 천정부지 모르고 치솟는 필수품 가격에서 자기 동료와 이웃 가족을 보호해 주었다. 삼성은 아시아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좋은 공동체 관계의 씨를 뿌리고 이제 그 수

치한 그 직원은 1천명이 넘는다. 비록 만장일치의 원리가 그 영향을 억제하지만 OECD는 고문하는 기관으로서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다.

26) James Graff, "Giving Some of It Back," Time 1999년 2월 22일자 42-46.

확을 하고 있을 뿐이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아니다. 이견희 회장은 1987년 자기 부친에게서 회사를 넘겨받은 이후, 집단 시민 개념의 일부로 직원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강조하였고, 1997년 삼성은 2억 9천만 달러의 이득에 대비해 약 1억 1천만 달러를 “사회 기여금”으로 사용했다. 사회 기부금은 강물 환경 보존책, 화장실 건축, 컴퓨터 교육, 저소득층 노인과 자녀 지원 등에 충당된다. 삼성의 선린 정책을 맡은 민경준씨는 “기업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역할을 함으로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이상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자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했다.

1990년 대 동서 냉전 체제의 붕괴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화, 국경과 블록권에 폐쇄당했던 자본과 기술, 상품의 시장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적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²⁷⁾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10년이 지나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가 정착된 세계화의 결산은 선진국 몇 나라를 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세계화라는 멍에 걸려 중병을 앓고 있다. 결국 전세계의 부를 20% 선진국들이 80%나 차지하고, 80%의 가난한 빈국들이 나머지 20%를 쪼개어 갖는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빈국들의 외채는 더욱 증가하여 수 천억 달러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이자도 못갚아 부도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늘어난다.

세계 인국의 1/5에게는 부와 행복을 증대시키고, 4/5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가난과 부채, 실업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제 세계화는 여러

27) 세계화(globalization)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나 지역화(regionalization)나 같은 의미-어휘들 집단(semantic field)에 속한다. 유럽 공동체(EU)는 지역화라면, 세계화는 국경 없는 하나의 지구촌이 목적이며, 국제화란 이 세계화나 지역화를 가능케 해주는 우리의 넓은 안목, 자세를 지시한다고 보인다. 한국의 세계화는 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세계사의 주역이 되자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세계화는 세계 1,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Akira Iriye, *The Globalizing of America, 1913-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국제 회의에서 지탄의 주제가 되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나 세계 지식인들과 시민 사회 지도자들이 모인 다보스 회의, 김대중 정부 1주년 기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같은 국제 회의에서 그런 분위기였다.²⁸⁾ 초국적 자본과 기업들이 투기적 영리 활동을 통해 무제한의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력에 밀린 나라들의 기간 산업과 공공 기업을 사유화, 독점화하면서 구조 조정으로 대량 실업과 인권 탄압, 장시간 노동 강요, 국제 금융 기관들이 후진국을 수탈적 외채의 악순환에 빠뜨리며, 환경 파괴, 자원의 고갈 상태를 일으키는 세계화는 굶주린 이리 떼를 목장에 풀어놓는 악랄한 범죄라고 비난을 한다.

최근의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95년 어간에 세계적으로 25번의 금융 위기와 71번의 외환 위기가 발생했다. 이들은 각국의 금융 및 자본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80년 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²⁹⁾ 한국에 불어닥친 IMF 위기의 근본적 배경도 자본 운동의 세계화와 국제 금융 체제의 투기성 강화, 경제의 개방 확대에 있었다. 국제 금융 시장의 투기성 강화가 각국의 환율 변동을 증폭시키는 등 경제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취약한 내적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들에서 경제위기(금융위기)가 폭발하였다. 외환 위기가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것은 국가간 무역 및 투자 등 실물면에서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점에도 일부 원인도 있지만, 1990년 대 들어 세계 각국의 금융 및 자본 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헤지 펀드(hedge fund) 등 투기성 단기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유출입이 빈번해진데 더 큰 원인이 있다.³⁰⁾

이러한 자유 방임적 경제적 세계화에 대해, 인권이나 정의, 인간의 삶과 생태계 보존을 우선적인 가치로 세우며, 모든 인류를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구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윤리적 세계화”

28) 이삼열, “두 가지의 세계화,” 「국민일보」 1999년 3월 6일 22면.

29) 한국은행, 「주간 해외 경제」 34 (1997년 8월).

30) 장상환, “국제 금융 기관의 본질과 IMF 경제 체제,” <신학사상> 101 (1998 여름), 6.

운동이 양심과 지성을 간직한 종교인, 지식인, 시민 사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야기시키고 있다. 시장 경제를 카지노장으로 만드는 투기 자본들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토빈세”(Tobin Tax)라든지,³¹⁾ 윤리적 규범들을 세계적 기준으로 만들자는 세계 윤리 표준(global standard) 운동들이 그것이다. 세계적 시장 경제에다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규범과 가치를 입히자는 윤리적 세계화가 성공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경제 공황이나 세계 대전, 생태계 파멸 등 예측되는 21세기 대 재난을 막을 수 있다는 논조이다. 이런 윤리 세계화 운동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인식만 가졌다면 성도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제4 원리는 민주 시장 경제의 원리이다

1) 아담 스미스가 바라본 시장 경제의 토대는 ‘양심’ 이었다

근대적 의미에서 경제학의 시작은 1776년 “나라들의 부의 성격과 원인들에 대한 탐구”(국부론)를 저술한 아담 스미스에서 비롯된다. 그 실제적 측면에서, 이 책은 중상주의자들의 보호 무역을 공격하고, 자유 무역을 주창하는 교서와도 같은 것이었다.³²⁾ 아담 스미스는 주로 그의 정치 경제의 포괄적 체제를 다룬 국부론의 저자로 이해되어 왔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여 그는 사회 철학자였으며, 따라서 그의 경제학 작품은 단지 정치적, 사회적 진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의 한 정점을 구성했을 뿐이었다. 그의 대표작을 그의 이전 작품들, 곧 도덕 철학과 정부

31) 노벨상 수상자 Jacob Tobin이 투기성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외국 환전시 0.5%의 과세를 물리자는 것.

32) Robert L. Heilbroner, “Smith, Adam,” in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ition) 27:312-15.

에 관한 강조들이나, 1759년에 발표된 “도덕적 감성론”에서 암시한 것들, 그가 저술하고자 했던 “법과 정부에 대한 일반원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시대들에서 거쳐간 다른 변화들에 대한 일반 원리들” 등과 함께 고려해 본다면, “국부론”은 단지 경제학 논문으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역사 진전의 구도의 일부 묘사로 밖에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1759년 발표된 그의 첫 작품 “도덕 감성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은 나중 《국부론》이 토대한 심리적 토대를 놓았다. 여기서 그는 하나의 특별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니,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도덕적 판단을 형성하는 능력의 원천에 대한 것으로,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최우선의 욕망에 직면하여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였다. 스미스는 인간을 욕망에 내몰리는 피조물로 보고, 동시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더구나 동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율 조절되는 존재로 보았다. 이 이중성은 개개인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작동하고, 합리적, 도덕적 기능들과 함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싸움을 완화시키고 심지어는 공통의 선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제도(기관들)을 창출하게 한다. 그는 “도덕적 감성”에서 나중 국부론에서 반복하는 유명한 관찰을 기술한다. 곧,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알지 못하고, 혹은 의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이다. 국부론에서 그가 다루고자 한 문제는 욕망과 공평한 목격자 사이의 내적 투쟁이 ‘역사’라는 보다 큰 영역에서 어떻게 그 효과를 드러내도록 작용하는지였다. 그가 분석한 이런 내적 투쟁에 의한 인류의 발전 단계들은 사냥군의 원시적 상태, 유목 농경의 단계, 봉건 혹은 장원의 농업 단계, 마지막 통상의 상호의존 단계 등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자본주의의 단계가 아니겠는가?

비록 아담 스미스가 산업 혁명기 이전 (아니면 적어도 그런 획기적 변화의 징조를 느끼던 시기)에 살았다 해도, 그가 예기한 자본주의의 시

장 경제에 대한 안목은 대단히 예리하였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살았던 유럽은 그 당시에 기독교권(Christendom)이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아담 스미스는 볼테르 같은 무신론 계몽 사상가와도 친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당대 유럽인들의 세계적 안목은 아주 진전되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그가 주창한 그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는 인간의(기독교적?) “양심”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2) 자본가, 노동자, 공무원, 국민 … 모두 심성의 변화가 요청된다

주인(자본가)은 노예(노동자들)를 대할 때 자기도 하늘에 주인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행동해야 하고(골 4:1), 노예는 주인을 섬길 때 주님 섬기듯 일을 해야한다(골 3:22-25).³³⁾ 로마 제국에서(심지어 전 세계까지만 해도) 노예들은 물품이요 상품이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노름말로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자 운동을 주창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독교인 노예들에게 주인(불신자라 해도)을 불신자 노예보다 더 잘 섬기라 명했다(골 3:22-25; 고전 7:20 이하). 노예들은 자기 일신의 유익보다는 복음을 위해 현실에 순응해야 한다. 혁명은 피를 부를 것이었다. 노예들은 자신의 노예됨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때가 단축해진 고로 이 세상 흔적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충 살라’ 거나, 세상을 도피해서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세상’을 상대화시키는 기독교인 노예들은 세상에서 더욱 값어치 있게 본전을 뽑도록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행한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상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의 영광이 여기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잘 섬기라!(고전 7:24 결론).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능징치 말라”고 하고, 군

33) 골 3:22-25, 4:1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주인에 대하여는 한 구절만 할애하는 반면, 노예들에 대하여는 네 구절이나 할애하여 권면하는 것은 기독교인 노예들의 자세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이었는가?

병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죽한 줄로 알라”고 권고하였다(눅 3:12-14). 판사나 검사는 불편부당해야 한다(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지며”). 왕(대통령)은 사악한 비서관을 제해야 한다(잠 25:5;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³⁴⁾ 관리들은 뇌물을 멀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항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자유 경쟁을 기초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시장 경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국가 규제의 보충적 기능을 인정하므로, 혼합 경제 체제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를 “사회적 시장 경제주의” 혹은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라 부른다.³⁵⁾ 따라서 정부의 공정한 역할 수행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라 함은 결국 관리들을 의미한다. 저들도 결국 인간이라는 점에서 타락성을 갖고 있다.

현대 산업/정보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앞에서 언급한 삼성이 해외에서 잘 하는 일과 같은). 그런데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과거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 기구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기에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 배분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였다. 그런데 지난 30여년 간의 빠른 경제 성장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의 성과는 아주 양호했고, 따라서 정

34)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편, 《일선 경제 기자들이 보고 쓴 한국의 경제 관료》(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4)는 경제 관료들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35) 김영추, 《현대 경제법》(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6), 57.

부는 자신의 계획과 조정 능력에 대해 상당한 자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계화가 가속되어지면서 정부의 조정 능력은 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진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 활동의 조정 기능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대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영역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발전을 목도하면서 정부의 공직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다른 아닌 시장의 조정 역할에 대한 믿음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은 때로는 불안정하거나 무질서 해 보여 그때 그때마다 개입하여 바로잡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에 의한 경제 활동의 조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의 경제 생활과 기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여 경쟁과 자율에 의한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경제 활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 보장과 같은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산업/정보사회에서 기업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장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시장의 여건 형성과 감독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³⁶⁾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제1조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쟁’이라는 개념이다. 전용덕 교수는 한 책에서 공정 거래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³⁷⁾ 그에 의하면, ‘경쟁’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류

36) 박명호 (한국 개발 연구원 연구위원)의 “정보사회의 경제윤리” (인터넷에 띄운 글).

37) 전용덕, 《공정거래법의 모순》(서울: 자유기업센터, 1997), 34-35.

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전용덕에 의하면, 자유로운 경쟁(*free competition*)은 문제가 없지만,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은 문제가 많다. 경쟁은 본질상 경쟁자를 물리치거나 거꾸러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이라는 수식어를 경쟁이라는 말 앞에 놓을 수 없다.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 경쟁의 요건에 경쟁 수단의 공정성을 포함하는 오류를 범한다. 예컨대, 전쟁시 적군을 총으로 죽이면 공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고, 칼로 죽이면 공정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한 것인가? 또는 적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칼만 갖고 있을 때 총을 사용함이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독점 발생 원인을 나열해 보면 정부에 의한 진입 규제, 업자간 담합, 규모의 경제, 높은 생산성, 약탈이나 결합 등과 같이 경쟁자를 사버리는 방법, 기타 독점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다. 이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독점 발생 원인으로서는 정부에 의한 보호, 업자간 담합, 경쟁자를 사버리는 방법 등이다. 그런데 경쟁자를 사버리는 방법, 즉 사적인 독점 기도 행위는 독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인 정부에 의한 진입 규제나 업자간 담합보다 일전적으로 각종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 그러므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부에 의한 각종 진입규제나 법적 제한을 철폐하고 업자간 담합을 찾아내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이다.³⁸⁾

요컨대, 정부(결국 공무원), 기업(자본가들과 노동자들), 소비자, 국민 모두는 시장/자유민주 체제에서 할 책임과 의무의 몫이 있다. 그것은 공정한 게임을 하도록 정부는 감독하고, 기업은 게임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중생한 자본가/노동자, 관리들을 배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전통적인 관존민비 의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백성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

필자가 미국에서 목도한 자세와 한국의 관료들의 자세에서 특출한

38) *Ibid.*

차이점은 바로 “봉사 정신”의 측면에서 였다. 이런 자세는 심성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될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들이 기업에서 연수를 받고 서비스 자세를 배우는 일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은 저들이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일하도록 교회가 더욱 각성하여 한국민을 모두 변화시키는 일이다.

3) 기독교인의 복음은 전인적이다

신신학을 표방하는 한 신학자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왜곡된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복음주의를 표방한 보수적 개신교 집단들에서 찾아야 한다고 기소한다.³⁹⁾ 복음주의 오류는 영육의 분리의 선교 신학에서 야기되었다 한다. 영혼 구원만을 고집함으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성에 있는 인간을 도외시키는 선교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비판이다. 그리고 루터의 두 왕국론을 왜곡시켜 정교 분리의 사회 윤리를 주창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행동하도록 오도했다는 것이다. 이런 선교신학적, 사회윤리적 왜곡에 더하여 70년대 미국의 자본주의적 성장론을 배경으로 나타난 교회성장론을 수입하여 개신 교회들을 무제약적 경쟁 논리로 몰아가는 우를 범했다 한다.

반면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들과 진보적 신앙인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체제의 모순과 그것이 60년대 이래 한국에서 자행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왜곡을 비판하고 투쟁하면서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⁴⁰⁾ 특히 WCC 창설 교회들은 세계 대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사회론(Responsible Society)이라는 정치론을 주창하고, 1952년 빌링겐 대회에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한다.⁴¹⁾ 이런 복음주의에 대한 기소는 부분적

39) 손규태, “오늘날의 경제윤리,” <신학사상> 101 (1998/ 여름), 76.

40) *Ibid.*, 79.

41) 김은수, “Missio Dei의 기원과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학사상> 94 (1996 가

으로 정확하다. 복음주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악하다고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수립해야 할 장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루터교와 달리 칼빈주의자들이 가져온 중요한 사고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 사고가 영·혼·육 전인의 축복을 잘 제시한 성경적인 '전인(全人) 복음'이라 믿는다.⁴²⁾ 그가 성공할 수 있다고 성도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성공하는 방법은 '철저한 신앙'이라고 반복 설교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내세의 심판이나 회개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설교는 박정희 정권 시대의 '할 수 있다'의 정신과 잘 어울렸다. 만약 그가 일제 시대에 설교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터이다. 그도 '시대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전파한 '할 수 있다'의 신앙과 '삼박자 축복' 사고는 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정신적 디딤돌을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내세 구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물질적 축복까지 포함하며, 이것은 자신의 안일과 향락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수단이라는 점이다. 구약은 물질 축복을 신앙과 연결시키지만, 신약은 물질보다 영적인 축복을 강조한다는 이해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일면 정당한듯 보이지만, 신약이 구약에 토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신약을 구약과 분리시키는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조용기 목사에 의한 '국민일보'나 '스포츠 투데이'의 창간 등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혹은 시청율이 높다는 "호기심 천국" 프로그램에서 황수관 박사가 미신적인 주제들(손금, 사주팔자 등)을 다룰 때 한 마디씩 던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듯한 말들도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대중의 '사고 바로 잡아주기'의

을), 142-164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기원과 그 개념을 참조.

42) 복음주의 견지에서 보건대, 조용기 목사가 주장하는 한세대의 신신학 경향도 이해할 수 없다. 삼박자 축복이 성경적이라는 옹호는 그가 경영하는 바가 모두 옳다는 말은 아니다.

일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방금 언급된 언론 매체가 ‘영리성’ 과 ‘기독교적 사명’ 들 사이에서 엉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분노한다. 성경이 정죄하는 변태 성행위를 마구잡이로 묘사하다 복역했던 ‘마광수’ 를 부각시켜 그의 비-기독교적 사고(자유-방임적 성)를 은연 중 퍼뜨린다던지,⁴³⁾ 한국 공연예술진흥협의회 등급 심의에서 혼음(混淫)과 당구공 살인 장면 등 때문에 첫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노랑 머리” 를 크게 다루면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게재하고 “등급 심의의 잣대로 영화 상영 길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높아” 졌다는 식의 보도,⁴⁴⁾ 더구나 한·일 문화 교류 신문 만화 연재 1호로 연재한다는 “여우” 라는 공포 미스터리 만화 시리즈(일본 현역 최고 작가 요시카와 우타타 작품이며, 중학생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귀신 이야기) 등등은 이것이 기독교 언론 매체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기독교의 전인 복음은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

4) 자유 시장경제 체제는 최선/최종의 선택?

오늘날 같이 선진국의 자본가들이 세계의 약소국들을 위협이 최대인 투기성 해지 펀드같은 자본을 통해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환경에서 아담 스미스 같은 고전적 시장 경제를 주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에서 논술한 대로 우리는 세계 가족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하고, 약자를 끌어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 표준 윤리가 세계인들의 마음에 심어지도록 전파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의 계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즉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자를 구원해야 함과 동시에 기성 성도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전제하고서 아담 스미스처럼 우리는 여전히 시

43) “마광수 교수와 안미영 양의 자유대화,” 「스포츠 투데이」 (1999년 3월 19일), 39면.

44) 같은 날의 같은 신문, 39면

장 경제가 타락한 인간의 경제활동 체제로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발전적인 체제라 생각한다.

한편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근년에 종합적으로 진단한 대로, 인류 사회 발전사에서 하나의 종착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준다. 동구권의 공산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말 후쿠야마는 자유 민주주의 정체는 군주제나, 파시즘, 공산주의 같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제 인류 이데올로기 진화의 종점을 이룰 것이라 추정하였고, 그런 주장은 《역사의 종말》이란 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⁴⁵⁾ 후쿠야마가 의도하는 ‘역사의 종말’이란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인간 역사를 일관된 진화의 과정으로 본 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간 사회가 노예 제도와 자급 자족 농업에 기초한 단순한 부족 사회로부터, 여러 종류의 신권제도, 군주제도 그리고 봉건적인 귀족제도를 거쳐 근대 자유 민주주의와 기술 본위의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인류 사회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⁴⁶⁾

이런 인간 사회의 발전은 헤겔에 의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과 이성, 그리고 자존심의 추구 역사이다. 즉, 욕망이란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구하도록 인간을 충동하며, 인간은 이성에 의해 그것을 손에 넣는 최선의 방법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는 자존심이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결국 자유주의 경제와 정치가 모든 정체를 극복하고 현대 사회의 기본 구조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욕망과 이성의 상호 작용으로 설명된다면, 자유 민주주의는 자존심으로 설명된다.⁴⁷⁾ 이러한 설명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 체제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

45)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서울: 한마음사, 1995).

46) *Ibid.*, 9.

47) *Ibid.*, 14-17.

면 전자는 개인의 욕망이나 이성, 자존심, 창의성 등을 묶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쿠야마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야말로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의 사회 발전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목도하듯이, 자본주의는 물질의 풍요와 편리, 자유는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소득과 소유에 있어서 빈부간의 현격한 차이를 야기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물질적 풍요를 제일로 추구하면서 정신적 풍요로움을 상실하고, 인간다운 삶은 무시되고 풍요와 경제 성장에 인간이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창출했다. 여기에 더하여 기계화된 공장에서 인간은 로봇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고, 자연의 훼파로 인한 인류의 생존 무대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후쿠야마가 지적한 대로 자유 민주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제도임이 현재로선 틀림없다. 어느 대안적 체제도 당분간 없을 것 같다. 아시아 경제 위기가 불어 닦혔을 때, 심지어 어떤이들은 주장하길, 아시아 경제 위기는 정부가 개입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경제 모델”을 영구히 파괴시켜버렸으며, 유일하게 대안으로 남은 경제 모델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 경제 모델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했다.⁴⁸⁾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영원한 신천 신지를 바라보지만

48) Joseph Stiglitz,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urrent Global Economy: Address to the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hicago, Feb. 27, 1998); at <http://www.worldbank.org/html/extdr>. 물론 요셉 스티글릿츠는 이런 주장이 그르다고 반박하긴 하지만.

결론적 진술

개혁주의(칼빈주의) 성도들은 현대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갖는 세계사적, 종말론적 위치를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역사가 진행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경제 활동을 양심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표지들’은 나의 삶의 ‘열매들’로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경제 활동은 현재만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 따르겠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로”(sola fide)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숙할수록 삶의 “열매들”로 그 참 됨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불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의 한시적 성격을 아는 우리는 “경제 제일주의”를 버리고 “복음 제일주의”를 선택할 것이다.